

투데이 칼럼

가속화하는 북한관 미사일 방어망

1972년 미국과 소련은 무려 2년 반 가량의 마라톤협상 끝에 방어용 미사일 보유를 억제하는 새 전략무기제한협정을 맺는다. 이른바 '탄도탄 요격미사일(ABM) 협정'이다.

이는 양국이 상대방의 공격용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요격 미사일의 보유 수량을 최대 200기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격용 미사일이 아니라 방어용 미사일 보유량을 제한한 이유는 미소 간 핵전략 대결의 핵심인 '공포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공포의 균형이란 핵보유국들이 서로 핵공격을 감행하면 공멸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갖게 해 상호간 전쟁 도발이 억제되는 상태를 뜻한다.

미소가 경쟁적으로 ABM을 개발·확충해 상대방의 핵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믿게 되면 공포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인보 균형이 무너지면 자칫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ABM 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다. 미소는 ABM 협정 체결 후에도 갱신·개정 여부를 놓고 수시로 신경전을 벌였다.

그리고 미사일방어체계(MD) 강화를 추진하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2년 6월 ABM 협정 공식 탈퇴를 최종 확정하면서 판이 깨졌다.

그나마 양측 간 맺었던 여러 건의 전략무기제한협정 중 공격용 미사일, 핵무기를 억제하는 협정이 일부 유지돼 현재까지 아슬아슬하게 핵 균형을 맞추고 있다.

최근 한반도에선 과거 미소 간 ABM 협정 체결 및 폐기의 역사를 새삼 되돌아보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공격용 핵·미사일 무기 확충에 열을 올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돌연 신형 방어용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일명 '신형 반항공(反航空)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난 9월 30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험발사의 목적은 해당 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 발사대·탐지기·전투종합지휘자의 운용 실용성 확충이었다고 전했다.

북한식 표현인 반항공 미사일을 한국식으로 풀이하면 '방공미사일'이다. 적의 항공 물체를 막는 미사일

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방공미사일은 발사 위치 및 방식에 따라 지상(육상)에서 쏘아 올려지는 '지대공', 공중 발사되는 '공대공', 함정 및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함대공' 및 '잠대공' 미사일로 분류된다.

북한의 이번 신형 반항공 미사일은 지상의 이동발사차량(TED)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이다. 이처럼 북한 방어용 미사일에 대한 관심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 미소 간 ABM 협정 체결의 역사적 배경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김정은 정권이 이미 핵무장으로 완성해가는 상황에서 ABM을 고도화해 북한관 미사일 방어망까지 갖추려면 남북 간 인보 균형이 흔들릴 수도 있다.

유사시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전략·전술무기 체계가 일정 부분 효과를 보지 못하

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재래식 공격 역량과 정밀 타격 능력은 북한 지휘부에 핵 도발 시 북한 정권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조성했다. 합부로 북한이 대남 공격을 감행할 수 없도록 하는 '공포의 균형' 효과였던 것이다.

북한이 ABM의 일종인 '반항공미사일' 등을 고도화해 우리의 미사일·항공기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 공포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우리 군은 유사시 북한에 선제 타격을 감행하는 '전략표적타격(킬체인)' 전략을 수립해왔다. 북한이 선제 공격시 대규모 반격으로 보복하는 '압도적 대응(대량보복응징)' 전략도 세웠다.

그런데 이를 북한이 방공미사일 등으로 일부분 막을 수 있게 되면 대북 억제력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문턱이 낮아져 한반도 인보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하는데 소요되는 연구 개발 및 양산 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해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중국 등 옛 동구권 국가들의 미사일 무기 체계 및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협력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사설

광복 76주년 음악회 공연 시낭송

최근 전주시 덕진동 잠복대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광복 76주년 음악회 공연 시낭송'이 열려 주목을 받았다. 행사는 광복회 전라북도지부가 주최했다.

그리고 여원공연시낭송 연구회 그리고 사단법인 여원공연시낭송 예술원이 주관했다.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평화와 번영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며 "남과 북이 광복 기념 음악회를 함께 치르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공연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다양한 시 낭송과 성악가, 악기 연주자, 그리고 가수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육사의 '광야' 시가 낭송되고 '입실 만세 소리' 가 노래로 다시 태어났다.

군무(群舞)에 이어 '백골예찬' 시 낭송 그리고 기타와 오카리나, 춤이 함께 어우러졌다. 모운속 시인의 '죽국은 죽어서 말한다' 시 낭송이 진행됐다. 마치 막으로 '애 대한민국'을 열창

하며 공연의 대미(大尾)를 장식했다.

이번 공연은 선열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시와 노래, 무용 등 연출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 되새기고자 준비됐다. 기획과 편집, 그리고 무대와 영상을 배경으로 감동적인 공연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서울 이강철 낭송가는 "감동의 무대였다"면서 "근대의 시인 역사가 예술로 펼쳐진 만큼 교훈도 컸다"고 말했다. 실제로 캐스트는 물론 스태프 모두 훌륭했다고 극찬했다.

참석자들은 요즘처럼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은 국민이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애국 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은 시공을 초월하여 항상 우리를 곁에 자리하고 있다.

이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원 시 낭송회 발전을 기원한다.

인기 높은 '오징어 게임'

최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오징어 게임(Squid Game)'이 성공 신화를 쓰고 있다. '오징어 게임'은 액션, 그리고 서스펜스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는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총 6개의 게임을 통과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오징어 게임은 2021년 9월 17일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시작했다. 한국 콘텐츠 최초로 미국 그리고 전 세계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83개 국가 중 인도를 제외한 82개국에서 1위에 올랐다.

'오징어 게임'은 공개 3주 만에 SNS 팔로워 900만을 돌파할 정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작품을 통해 배우로 처음 발을 디딘 정호연은 데뷔작부터 인기를 얻었다. 정호연은 극 중 동생과 함께 한국으

로 넘어온 새터민 새벽 역을 맡았다. 그러나 지금의 높은 인기를 기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새벽이를 너무 사랑한다. 새벽이라는 친구에게 큰 애정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실 거라고 예상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캐스팅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놀랐다"고 덧붙였다. '오징어 게임'은 자극적인 소재, 그리고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메시지를 투영해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황동혁 감독은 "한 번 했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새로운 이야기, 그러면서도 리스크가 느껴지는 이야기에 끌린다"고 했다.

그는 또 "안전하지 않고 내 마음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작품, 그런 걸 해야 도전 의식도 생기고 동기 부여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답에서 '오징어 게임' 성공 신화의 원동력을 엿볼 수 있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인도 스타 칸 아들, 마약 혐의로 체포



마약 혐의로 지난 2일(현지시간) 체포된 발리우드 인기 배우 샤룩 칸의 아들 이리안 칸(23·가운데)이 8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마약 단속국(NCB)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 쌍십절 연설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10일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열린 중화민국 수립을 축하하는 쌍십절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